

이 동통을 수반하며 점점 크기가 증가하여 본원에 내원 하였다. 조직생검을 통해 하지에 생긴 활막육종으로 진단받고, 외과적 적출술을 시행 받았다.

절제된 종괴는 10×6×5cm 크기로 경계가 불분명하고, 주변조직으로 침윤성 증식을 보였다. 절단면은 출혈과 피사가 다소 관찰 되었지만 균질하였다. 조직학적으로, 난원형의 상피세포 성분과, 방추형의 간엽세포 성분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중상을 보이는 활막육종이었다.

내원당시, 오른쪽 폐하엽에도 전이소견을 보이는 종괴가 관찰되어 침 생검을 실시하였다. 침 생검 소견상, 세포밀도는 비교적 치밀 하였으며, 중등도크기의 난원형 및 방추형 모양의 다양한 크기의 종양세포들이 균을 이루거나 산재되어 있었다. 구성하는 세포의 핵은 대부분 진한 염색성을 보였고, 세포질은 불분명하였다. 하지에서 전이된 활막육종으로 진단 하였고, 하지종양 적출 후 두차례 화학요법을 받고 우측하엽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우측하엽에서 생긴 종괴는 5cm의 장경을 갖는 경계가 분명한 원형으로서 단면은 연회색으로 균일 하였고 조직학적으로 하지에 생긴 종괴와 동일하였다.

5. 기관지 세척용액을 이용하여 진단한 폐의 Langerhans 세포 조직구증

- 1례 보고 -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of the Lung Confirmed by Ultrastructural Study Using the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 A case report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내과학교실* 및 방사선과학교실**

조미연, 정순희, 신계철*, 성기준**

폐의 Langerhans 세포 조직구증은 전신질환의 일환이나 폐에 원발성 (Farinacci 등, 1951년)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초기에는 폐실질에 미만성의 망상 및 소결절형 병변이나 독립성 병변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회복되지만 환자의 일부는 진행하여 간질내 섬유화와 늑막하 낭포를 동반한 다발성 낭형성으로 별집모양폐를 보이게 된다. 조직검사를 통해 호산구 및 조직구의 침윤과 전자현미경상 Birbeck granule을 관찰하는 것이 확진에 가장 중요하므로 병리학적 검색을 위한 검체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 기관지 세척법은 비관혈적 방법으로써 감염성 폐질환, 폐출혈, 폐포내 단백증과 간질내 침습성 질환을 진단하는데 보조적으로 이용되며, 폐실질 내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자들은 기관지 세척용액에서 얻은 세포로 전자현미경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한 21세 남자의 폐에 발생한 Langerhans 세포 조직구증 1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과거력상 1년전 폐결핵의진하에 1년간 항결핵제를 복용하였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었으며, 내원 당일 기흉으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 방사선 소견상 양측 상엽과 중엽에 미만성으로 다발성의 소낭과 망상 및 소결절형 음영, 불규칙한 변연을 가진 늑막하 낭포의 소견이 있었고, 폐기능 검사상 경한 폐쇄

성 질환과 중등도의 확산능 감소 소견이 있어 기관지경을 시행하였으나, 기관지강내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기관지 세척용액을 채취 즉시 1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침강물을 glutaraldehyde에 고정한 후 다시 원심분리를 시행하여 얻은 고정된 침강물을 epon에 포매 후 절편하여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이중염색하여 전자현미경검색을 시행하였다. Giemsa 염색상 침강물은 대부분의 조직구와 소수의 호산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자현미경검사상 조직구의 세포질은 양이 풍부하였고, 짧은 세포질돌기, 소수의 lysosome 그리고 특징적인 Birbeck granule이 관찰되었으며, 핵막의 굴곡이 심하였다. 장골에서 시행한 골수 침생검상 다수의 호산구 침윤을 동반한 육아종이 관찰되었다.

6. 흉강에서 발생한 악성 상피성 중피종의 늑막삼출액 도말표본소견

- 1 증례 보고 -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병리학 교실

이연수, 지미경, 김병기, 김선무

악성 상피성 중피종은 체강을 덮고 있는 장막의 중피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으로 흉강, 복강 및 심낭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성장양상에 따라 국한성과 미만성으로, 조직유형에 따라 상피형, 섬유형, 혼합형으로 나뉘어진다. 특히 미만성이며 상피형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심한 삼출액의 형성을 보이고 다발성 결절을 형성하여 선암의 전이성 파종과 유사하다. 상피형의 악성중피종은 세포학적으로 늑막에 전이한 선암종과의 감별이 매우 어려운데, 핵-세포질 비율이 더 높고 비정형성 및 다형성이 뚜렷하고 호산성의 뚜렷한 핵소체를 가지고 있으나 절대적인 감별진단기준은 되지 못한다. 조직학적 관찰에서 종양세포내 점액성 물질의 성상에 관한 조직화학염색방법이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최근 여러가지 monoclonal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방법이 악성중피종과 전이성 선암종과의 감별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본 증례는 47세 남자 환자로서 5~6개월전부터 심한 흉막 삼출을 동반한 늑막질환이 있었고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우측하엽 주변으로 흉막이 미만성으로 두터워져 있었으며 일부 우측하엽의 후위부에 다발성으로 불규칙한 모양의 결절들이 관찰되었고, 광범위한 흉막삼출을 동반하고 있었다. 세포도말표본에서 반응성 중피세포들과 염증세포들이 높은 세포밀집도로 관찰되었고 다형성이 심한 종양세포들이 중등도의 세포밀집도를 보이면서 사이사이에 섞여있었다. 종양세포들은 주로 불규칙한 작은 판상구조와 세포군, 그리고 개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유두상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종양세포들은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중등도의 다형성이 관찰되었고 간혹 세포간 창을 볼 수 있었다. 세포막의 경계는 대부분 뚜렷하였으나 세포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다수 관찰되었다. 세포질은 대부분 균질성으로 호산성이고 풍부하였고 일부세포는 미세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고 드물게 인환세포형 세포도 관찰되었다. 핵은 핵-세포질 비율이 크고 다형성이 관찰되었으며 중앙에 위치하거나 약간 치우쳐 있었고 이핵세포들도 관찰되었다. 미세과립상의 염색질과 불규칙한 핵막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형 또는 불규칙한 모양의 뚜렷한 호산성 핵소체가 1개 이상 관찰되었다. 개흉